길을 찾아가는 호모 노마드

교수칼럼

김경수
임상약리학 교수

(사진=픽사베이)

이제 우리는 B.C(before Corona)를 지나서 전혀 새로운 세상인 A.C(after Corona)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

기나긴 인류의 역사를 다시 생각해본다. 셀 수 없이 긴 세월을 살아온 인류에게 지금 같은 격변이 한두 번은 아니었을 것이 분명하다. 수십만 년을 수렵과 채집으로 유랑생활을 하던 인류가 기후환경의 변화에 따라 1만여 년 전에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을 깨우치며 새로운 생활방식인 정주생활을 하게 된다. 야생 상태의 작물은 충분한 식량을 담보할 그런 작물이 못되기에 정주생활에 필요한 식량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 농작물 길들이기와 유전적 개량으로 새로운 품종을 개발했다. 이제 그 작물들은 농부의 도움 없이는 자연환경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 창조한 식물'이 되었다.

더불어 동물들의 가축화도 진행되어 야성을 잃은 동물들 역시 자연에서 살아남기가 힘든 상태가 되어 인간과 공생하며 인류문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가축화에 따른 대가도 치러왔다. 동물들이 인간사회에 들어오면서 동물들과 함께 따라온 불청객들이 여럿 있다. 홍역, 결핵, 천연두, 인플루엔자, 백일해, 열대말라리아 같은 질병들이 소, 돼지, 오리, 개, 닭 등 여러 동물들에서 사람으로 옮겨온 대표적인 질병들이다. 1980년대 인류를 공포에 떨게 했던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또한 유인원에 있던 SIV(유인원면역결핍바이러스)에서 유래되었다고 알려진다.

인류는 여러 격변한 환경변화에 대한 삶의 적응을 뛰어넘어 그를 이용한 새로운 변화를 주도해왔다.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힘을 프랑스의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는 유목민적 행위와 삶을 뜻하는 노마디즘(Nomadism)으로 설명하고 있다. 수백만 년의 긴 시간 동안 수렵과 채집을 하면서 돌아다닌 본성이 유전자에 기록되어 있어 인간의 정주생활인 지난 6000년 정착민의 역사는 긴 인류사에 아주 잠깐 끼어들었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인간은 다시 유랑을 계속하며 기존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넘어 새것을 창조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그는 생각한다. 그래서 유목민을 뜻하는 노마드의 이름을 따서 인류의 정체성을 Homo Nomad, 즉 '유목하는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지구촌 시대를 대표하는 디지털 유목인들은 Wifi로 연결되는 곳이면 디지털 기기 하나 들고서 세계 구석구석을 내 안방처럼 돌아다녔다. 그러나 우리의 편리함과 욕심을 위해서 생태환경을 너무 파괴하였고 서식처를 잃은 동물들의 역습으로 갑자기 길 위에서 멈춰버린 호모 노마드는 더욱더 좁은 공간에서 당분간 정주하여야 할 것 같다. 호모 노마드인 우리가 과연 이러한 정주생활을 얼마나 오래 견뎌낼 수 있을까? 노마디즘은 공간적 이동 외에도 더 나아가 특정한 방식에 매달리지 않고 끊임없이 삶을 탐구하고 창조해온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며 미래 현대인의 생존전략으로 그 의미를 넓혀서 생각하고 있다.

철학적 용어인 노마디즘을 빌리지 않아도 뇌과학에서 잘 알려진 뇌 가소성(brain plasticity) 이론으로도 인류 미래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뇌의 구조와 기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뇌가 변화된 환경의 영향을 받을 경우, 자신의 기능적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간단하게는 신경세포의 연결접합점인 시냅스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시냅스의 새로운 연결구조가 형성되어 새로운 방법과 길을 뇌세포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즉,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새로운 시냅스가 생기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신경회로가 형성되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문제해결 방법을 깨우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전염병의 도전 앞에서 호모 노마드 특유의 유연성과 창의성으로 응전을 하며 코로나 이후의 또 다른 미지의 세계를 찾아서 더 나은 문명의 길을 열어 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참여마당

이정우
언론정보학 2019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이번 학기는 '안녕하세요'로 강의를 시작하는 교수님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대신 연결 상태와 강의의 전달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말로 강의는 시작된다.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이윽고 채팅창은 "네, 잘 들립니다"라는 학생들의 대답으로 잠시 도배된다. 한편으로는 웃음이 나오는 상황이다. 잘 들리지 않는 학생들은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을 텐데 말이다.

'학습권 침해'라는 논제가 떠오른다. 학습권 침해는 다시 '형평성 문제'와 '강의 질 저하 문제'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은 형평성 문제다. 대면 수업은 강의에 출석만 제대로 한다면 참석자 모두가 동일한 강의에 노출된다. 그런데 비대면 수업의 경우는 다르다. 제 시간에 화상 강의에 참석한다고 해서 '동일한 강의'를 보장받는 것이 아니다.

인터넷 연결 상태 등 외부 방해 요소는 강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시청각적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 강의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의 반응이나 이해정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화면만을 보며 강의를 진행하는 수업은 학생들을 만족시키기 굉장히 힘들다. 강의 전달자는 학생들의 질문, 표정, 수업 태도 등을 참고하여 상황에 맞는 수업을 진행하곤 한다. 하지만 비대면 강의는 이 중 하나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다.

인터넷 강의(인강)가 현장 강의보다 가격이 저렴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현장강의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스타 강사들의 질 좋은 인강을 들으며 공부하던 학생들은 지금 약 10~20배 비싼 '등록금'을 내고 비대면 수업을 수강하고 있다. 하나의 절대지수도 다른 것 옆에선 상대지수가 되어 비교되기 마련이다. 동일한 매체를 이용하는 '입시 인강'에 비교해보았을 때 대학교 '비대면 강의'가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진다고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비대면 수업에 아직 논의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수반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배제하고서도 비대면 수업의 불가피함과 필요성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이 지속되는 현실에 순응하고 적응해야 할 것이다. 적자생존이라는 말처럼 비대면 수업에 잘 적응한 '적자(適者)'가 되지 않으면 이번 학기 성적에 큰 '적자(赤字)'를 초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대학교는 교육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면 소비자인 학생들의 불만이 생기는건 당연한 현상이다. 학교는 서비스 질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써야 한다. 비대면 수업에 관한 학생들의 불만이 더 비대해지기 전에 문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

365일, 디자인이 반짝입니다
중앙미디어디자인

브로슈어에서 전단, 잡지, 신문 제작, 광고물 제작까지
언제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당신을 빛나게 해드립니다

중앙 미디어디자인(주)

광고기획 및 제작 카탈로그 포스터 부동산전단 신문제작 대학학보 구청소식지 사보 출판 간행물 제작 CI· BI ☎751-5939